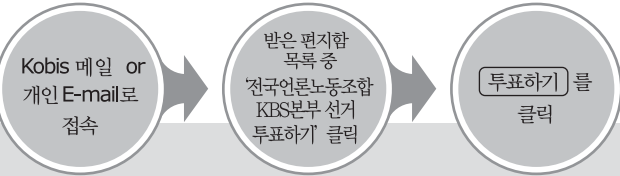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

이렇게 투표하세요



전자투표는 비밀투표가 보장됩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선관위는
물론 전자투표 대행업체도 알 수 없
습니다.



1단계 : 유권자 1차인증

1 사원번호와 성명 입력

2 인증키수신 방법 선택. 핸드폰 또는 E-mail을 선택 후 핸드폰번호 또는 E-mail주소 입력

3

등록되어있는 핸드폰, E-mail로만 인증 가능



2단계 : 유권자 2차인증

4 핸드폰 혹은 E-mail로 받은 인증키 5자리 입력

5 핸드폰 3분, E-mail 20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경우 클릭하여 인증키를 재발송 받는다.



5단계 : 투표완료

9 투표확인메시지가 핸드폰 또는 E-mail로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클릭



4단계 : 투표확인

8 선택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 후 클릭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바꾸시고 싶은 경우 클릭



3단계 : 투표

7 후보자를 다시 한번 확인 후 클릭

6 찬성 혹은 반대의 체크박스를 클릭 ([인] 가 생기면 바르게 선택된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2010년 1월 27일(수) 08시 ~ 2월 7일(일) 24시
- 투표(전자투표) : 2010년 2월 8일(월) 08시 ~ 2월 10일 (수) 20시

※선거운동 마감일(2월 7일까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으랏차차! 진짜노조!! 물렀거라! 특보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부위원장 후보

엄경철·이내규



새 희망, 새 노조의 길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 위원장 후보 엄경철

- 1994년 공채 21기 기자 입사
- 보도본부 사회부, 기동취재부, 9시 편집부, 국제부
- 청주방송총국
-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 2TV <뉴스타임> 앵커
- 보도본부 정치팀, 시사보도팀 <미디어포커스>, 수신료프로젝트팀
- 현 보도본부 2TV뉴스제작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 새 노조’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 후보로 나선 엄경철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KBS에 몰아친 광풍을 몸으로, 마음으로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KBS를 향한 국민의 요구와 비판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파도로 몰아치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어떤 무기력에 시달리는 시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KBS는, KBS 노조는 어디로, 누구를 위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합원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뇌의 시대입니다.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을 다시 생각합니다

새로운 KBS 노조는 ‘대단한 무엇’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KBS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원칙과 기본’의 문제가 ‘대단한 무엇’처럼 돼버린 게 지금의 역설적 현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약자에 대한 배려, 여론 형성의 장, 민주주의 확산’ 등이 수신료가 요구하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일 것입니다. KBS의 존립 근거는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는 대통령 특보 사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은 KBS로부터 더 멀어져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퇴행과 역린의 시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원칙과 기본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영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은 노조가 당연히 막아내야 합니다. 파업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KBS 노조와 조합원들의 파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KBS 노조와 조합원들은 국민이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조합원들의 생존권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지원과 연대도 가능합니다. ‘새 희망 새 노조’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새 희망 새 노조’가 그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범한 조합원으로만 15년의 세월을 KBS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노동조합의 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 삶의 급격한 변화가, 평범하게 살기 힘든 상황이 KBS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노조야말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의 불이익, 부당 인사, 부당 징계를 끝까지 막아내는 강한 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노조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의 리더가 아니라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리더, 조합원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가는 리더가 아니라 조합원의 뜻과 의지, 열정을 한 곳으로 묶어 융솟음치는 집단 지성의 촉매제가 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집단 지성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의 힘이 될 것입니다.

KBS를 지키는 당당한 이름! 새 희망, 새 노조!

조합원 여러분! 지금 가는 새로운 노조의 길에서 앞 선 사람과 뒤 선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직종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인으로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노조를 이끌고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그 길로 함께 갑시다. KBS를 지키는 당당한 이름! KBS를 말하는 자부심! 새 희망 새 노조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반듯한 노조, 진실한 노조 방송독립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며칠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인가?

새롭게 출범하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부위원장 자리를 앞에 놓고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2007, 2008년 2년 동안 11대 노조의 중앙위원을 맡으며 KBS가 군홧발에 침탈당하며 방송장악의 격랑 속에 침몰해 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몸을 던져 싸웠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또다시 이 길을 다시 가라고 하는 동료들이 솔직히 아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밝히고 찢겨 이제는 만신창이 다 돼버린 KBS를 누군가는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눈빛을 보고 저는 모든 주저함을 접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서로가 힘을 합한다면 그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헤쳐갈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있었습니다.

특보사장, 비리감사...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KBS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혹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장 자리를 차지한 이병순 씨의 뒤를 이어 급기야는 정권창출에 직접 앞장섰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가 하면, 아예 비리 전력자가 감사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의 정권홍보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이 돼가고 있고, 비판의 칼날이 빠져버린 KBS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영속을 위해 정부의 방송정책은 조종동에 종편 특혜 폭탄을 안기는데 맞춰져 있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가 저항하고 누가 견제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저항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동조합은 지난 몇 년간 극에 달한 노노갈등을 치유하고 일치된 역량을 모아 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사장에 맞서 방송독립을 위해 싸우

●● 부위원장 후보 이내규

- 1995년 공채 22기 프로듀서 입사
-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국 근무
- TV제작본부 기획제작국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연출
- TV제작본부 시사정보팀 <추적 60분>, <시사투나잇>, 교양제작국 <러브인아시아>, <6시내고향> 연출
- 11대 KBS노동조합 중앙위원
- 현 TV제작본부 교양제작국 <걸어서 세계속으로> 연출



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울타리를 벗어나 싸움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도 지난 1년 반 동안의 파상 공세에 어느 정도는 지쳐 있었습니다.

새 노조의 건설은 이러한 고착 상태를 타파하고 꺼져가는 공영방송을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져 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보 사장에 대한 파업 투표가 부결된 뒤 진퇴유곡에 빠졌던 노조집행부가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그 특보 사장과 나란히 서서 떡을 싸는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새 노조의 결성이 없었다면 정권의 방송장악 일정은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새 노조, 방송독립의 구심점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굴종과 순치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도 KBS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엔 기꺼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부위원장 출사표를 던진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과 KBS의 맑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신념은 변치 않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격려와 비판, 조언을 주신다면 희망과 웃음으로 새 노조를 방송독립의 구심점으로 세우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싸우는 노조! 행복한 조합원!

公約 1 KBS 관제화 저지, 방송 독립성 확보

- 낙하산 특보사장, 비리감사 반대
- 대통령 주례연설 폐지, 일방적 국정홍보방송 거부
- 뉴스 및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

公約 2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쟁취

- 편가르기식 측근 인사 거부
- 공정방송 모니터단 상시화
- 보도, TV, 라디오 편성위원회 실질화
- 보도 및 제작부문 국장 직선제 도입
- 간부 상향평가 정례화
- 부당징계 보복인사 철회, 원상회복

公約 3 정권 주도 일방적 방송구조개편 반대

- 국민동의 전제로 수신료 인상추진
- 수신료 인상 5대 조건
 - 정치적 독립성 확보
 - 정치권 및 시민사회 합의
 - 공정방송 실현
 - 국민부담 최소화
 - 국민 여론조사 등 국민 동의 확보
- 날치기 미디어법 원천 무효, 국회 재논의
- 조중동 종편 퍼주기 반대
-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등과의 연대강화

公約 4 구조조정 분쇄, 고용안정 쟁취

- 특보사장의 OEM 컨설팅 반대
- 조직개편 논의 공개, 퇴행적 줄속 조직개편 거부
- 고용안정 확보, 하위직 및 계약직 희생 강요 반대

公約 5 생활노조 지향, 조합원 복지 실현

- 노동조합비 사용내역, 분기별로 코비스에 공개
- <조합원 신문고> 설치, 직접 참여 확대
- 이달의 조합원상 신설
- 조합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확대
- 조합원 복지카드 발행, 회사인근 식당 조합원 할인 추진
- 조합원 생일케이크 보내기
- 조합원 및 조합원 배우자 출산시 꽃바구니 증정
- 조합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방학캠프 운영
- 조합원 가족 주말농장 운영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합원 벼룩시장 개설
- 여성조합원 휴게시설 확충 및 개선

公約 6 지역방송 활성화, 자율성 확대

- 지역담당 특임 본부장직 복원, 지역국 간부 지역 할당제 도입
- 총국장 임기제 및 조합원 신임투표제 도입
- 지역국 근무자 해외연수 할당제 실시
- 독립적 편성권 확대로 방송분권 보장 8%이상 추진
- 지역국 발령자 전세지원금 현실화, 이사비 지원
- 소외지역 편성 강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범 실시

새 희망! 새 노조!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 참는 이, 엄경철

“불의는 참고 불이익은 못참는다?” 어느 책에서 본 이 글이 명쾌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왜 KBS에 다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라고, ‘자아발전을 위해서’ 라고, ‘승진하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 참는 선배. 그의 이름 엄경철.

정세진 ● 아나운서실 한국어팀



수신료에 담긴 바람 저버리지 말기를...

경철 씨, 수신료현실화 하자고 머리 맞대고 이런 글귀 만들었었죠. “수신료에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알릴 것 알리고, 지킬 것 지키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신료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소박한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소망하고, 고민하고, 부딪치다 보면 언젠가 그 뜻과 바람에 다다르겠죠. 의롭고 지혜로운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성일 ● 수신료프로젝트팀



엄경철과 이내규, 공영방송 노조의 참된 길잡이

새노조, 새희망. 공영방송 노동조합의 참된 길잡이가 되는데 엄경철과 이내규는 참으로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새 희망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것이고 힘든 일도 즐거워지지 않겠어요?

최선욱 ● 라디오기술국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밤새 터를 지킬 사람

비바람을 맞으며 허허벌판에 집을 지어나가는 작업.... 작은 주춧돌 하나 온 힘을 다해 놓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엄경철이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밤새 터를 지키는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끔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엄경철은 바로 그 역할을 할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금철영 ● 보도본부 탐사보도팀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KBS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입사 3년차 많은 것을 겪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저희 같은 앞날이 창창한 후배에게도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십시오.

김석현 ● TV제작본부 TV제작운영팀



매서운 폭설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라!

상식이 역류되는 삽질의 시대, 공영방송마저 권력의 감시권이 아닌 푸들이 돼가고 있음에 일어난 언론노조 KBS본부! 연탄재 묻히고 피 뽑기 쇼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폭설속에서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KBS가 되도록 엄경철, 이내규 선배가 앞에서 잘 견인할 것으로 믿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범낙규 ● 경영본부 관재팀



엄경철, 이내규와 함께 민주와 '상식'의 황홀경으로~

엄경철, 이내규를 삼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오장육부와 핏줄이 터질 것 같은 <민주>와 <상식>의 황홀경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몸이 부서져도 난이 약을 꿀떡 삼킬란다...그리고 열락의 세계로 가볼란다...당신들은???

이태현 ● TV제작본부 교양제작국



이기는 싸움을 하는

지혜

그들에게만 있는

그 무엇!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는

勇氣

엄경철
이내규

공영방송인의

良心



엄경철, 이내규면 안심이 된다

엄경철과 이내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놓고 보니 결의는 굳어지고 마음은 안심이 된다.

엄경철, 조용조용하고 다정다감하되 원칙을 절대 잃지 않는 사람.

이내규, 시원시원하고 바지런하며 어려운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원칙과 상식을 바로세우는 한편으로 많은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할 이 시기 이 노조에 그만큼 잘 어울리는 정 부위원장 후보가 또 있을까 싶다. 갈갈이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온기로 위로해줄 사람, 때로는 사납게 그러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우리의 싸움을 이끌어줄 사람, 엄경철과 이내규, 이 두 사람에게 나의 결의와 선의를 맡긴다.

국은주 ● 라디오본부 한민족팀



엄경철, 그의 지혜와 순수함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상식이라고 받아들였던 원칙이 여기저기서 뒤집힙니다. 믿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허탈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식마저 뒤엎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지 헤매는 상황에서, 그의 지혜가 더욱 빛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판단력은 신중하고, 냉철하고, 결국 현명했습니다. 그렇게 옳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고 험한 길, 그의 지혜와 순수함이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할 것을 믿습니다.

용태영 ● 보도본부 행정복지팀



노동조합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노동조합도 상식이 통해야 조직이 바로 섭니다. 노동조합도 타협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은 개입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경철과 이내규 후보에게 그런 노동조합을 기대합니다.

최종철 ● TV기술국



다시 부끄러움에서 자부심으로

자부심이 부끄러움으로 변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KBS라는 이름이 명예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것이었던가요. 왜 이 곳은 민주화와 방송독립에 앞장서지는커녕, 늘 권력이 따먹는 과실의 노릇이나 자청하는 것일까요. 왜 존경 받는 선배들은 늘 쓸쓸히 무릎 꿇거나 뽀뽀이 흩어져야 했던 걸까요. 소속에 대한 수치심을 간신히 털어내는 데 앞장 서 주신 두 후보님께 최선의 응원을 보냅니다. 이곳이 조금이라도 덜 망가질 수 있도록, 제 자리만큼이라도 지키며 선배님들을 따르겠습니다.

유종선 ● TV제작본부 드라마제작국